

차별과 위기를 극복한 퀘벡의 사회적 경제

퀘벡 사회적 경제의 특징과 다양한 협동조합

2013.01.04 |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목차

1. 프랑스계의 역사를 간직한 퀘벡
2. 경제위기 앞에 뭉친 상티에
3.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전방위 네트워크
4. 퀘벡의 다양한 협동조합

새사연은 2006년에 설립된 진보적 민간 연구소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으며,
회원들의 후원회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프랑스계의 역사를 간직한 퀘벡¹⁾

퀘벡은 캐나다 10개주 중 하나로 캐나다 남동부에 위치하며,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면적은 154만km²로 서울의 2000배가 넘지만, 인구는 790만 명으로 서울보다 적다. 퀘벡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발전한 곳이다. 3000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하며, 조합원은 880만 명이 넘는다. 조합원 수가 퀘벡의 전체 인구수보다 많은 것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협동조합에 가입해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7만8000개에 이르며, 연간 매출은 180억 달러(약 19조 8000억 원), 자산은 1000억 달러(약 110조 원)를 기록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는 퀘벡주 전체 경제의 8~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식적인 통계는 없고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탈리아의 에밀라로마냐가 르네상스의 인문학적 전통과 파시스트에 저항했던 빨치산의 역사와 같이 독특한 문화적 배경 덕에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퀘벡 역시 사회적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다. 퀘벡은 프랑스 전통을 물려받은 곳이다. 캐나다는 1500년대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1700년대 영국의 식민지로 넘어간 역사를 갖고 있다. 프랑스계와 영국계가 300년 이상 함께 살고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캐나다를 두고 벌인 전쟁에서 최종 승자는 영국이었고, 패자는 프랑스였다. 때문에 영국계가 사회의 주류세력이 된 반면 프랑스계는 많은 차별을 받게 된다. 영어 사용자가 프랑스어 사용자보다 2배 정도 많다. 프랑스계는 박해받는 소수민족이었던 셈이다.

원래 외부의 적이 있으면 내부의 집단정체성은 더 명확해지기 마련이다. 프랑스계가 모여 살던 퀘벡 역시 강한 독립성과 자치성을 갖게 된다. 퀘벡은 프랑스어만을 공식어로 인정하는 캐나다 유일의 주이다. 1980년과 1995년에 캐나다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국민투표가 진행되었고, 이 중 한 번은 0.3%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다. 최근에는 분리 독립에 대한 요구가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지역정당인 퀘벡당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만큼 프랑스계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의 역사가

1)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2년 8월 iCOOP협동조합연구소의 지원 아래 사회적 경제 연구를 위해 캐나다 퀘벡에 다녀왔다. 이 글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2012년 9월 25일 정태인과 이수연이 <한겨레>에 기고한 글 “퀘벡의 사회적 경제 모델 들여다보니, 기금과 풀뿌리운동 결합한 시민참여경제”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깊은 것이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퀘벡은 캐나다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편에 속한다.

2. 경제위기 앞에 뭉친 샹티에

퀘벡의 변화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프랑스계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 개선을 위한 정치, 경제, 문화 개혁이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이를 ‘조용한 혁명’이라고 불렀다. 1974년 프랑스어가 퀘벡의 공식어로 선포되었고, 1977년 퀘벡당이 프랑스 언어법을 선포했다. 프랑스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만인의 평등을 보장하는 종교, 교육, 사회복지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1980년대에 일어났다. 당시 서구 자본주의가 그랬듯이 캐나다도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해 정부 주도 발전 전략도 한계에 부딪혔고 당연히 사회복지 지출도 줄어들었다. 돌이켜 보면 당시 두 갈래의 대응책이 있었다. 하나는 우리도 익히 아는 민영화, 즉 시장에 맡겨서 효율성을 높이는 길과 또 하나는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는 길이었다. 전자의 길은 값비싼 고급 서비스는 만들어냈을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는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후자의 길 끝에는 비용 감축과 동시에 만족도의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가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퀘벡은 후자의 길을 선택했다.

경제위기 앞에서 퀘벡은 노동운동 내의 논쟁, 정부와 공동체간의 시끄러운 논쟁을 거친 끝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지역개발이란 보통 국가나 정부의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퀘벡에서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 부문이 공동의 주체로 나섰다.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재정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를 지원했다. 지역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그리고 노동운동과 같이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은 협동조합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퀘벡의 사회적 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를 갖고 시민운동

과 지방정부에 의해 합작품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제 막 사회적 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퀘벡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연합체인 샹티에(Chantier)이다. 프랑스어로 ‘작업장’이라는 뜻을 가진 샹티에는 1995년 만들어졌다. 당시의 퀘벡은 12%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로 애를 먹고 있었다. 이 때 퀘벡의 여성운동이 ‘빵과 장미를 위한 행진’이라는 이름의 경기 침체와 실업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어서 퀘벡 주정부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각종 시민단체들이 빈곤과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찾기 위한 연석회의를 갖게 된다. 그 결과 ‘자, 연대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탄생했는데, 여기에는 퀘벡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부터, 각종 사업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경제 위기 해결 방안이 담겨 있었다. 주정부는 이 보고서를 받아들였고 보육과 주거, 환경, 문화 분야에서 각종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설립 등을 적극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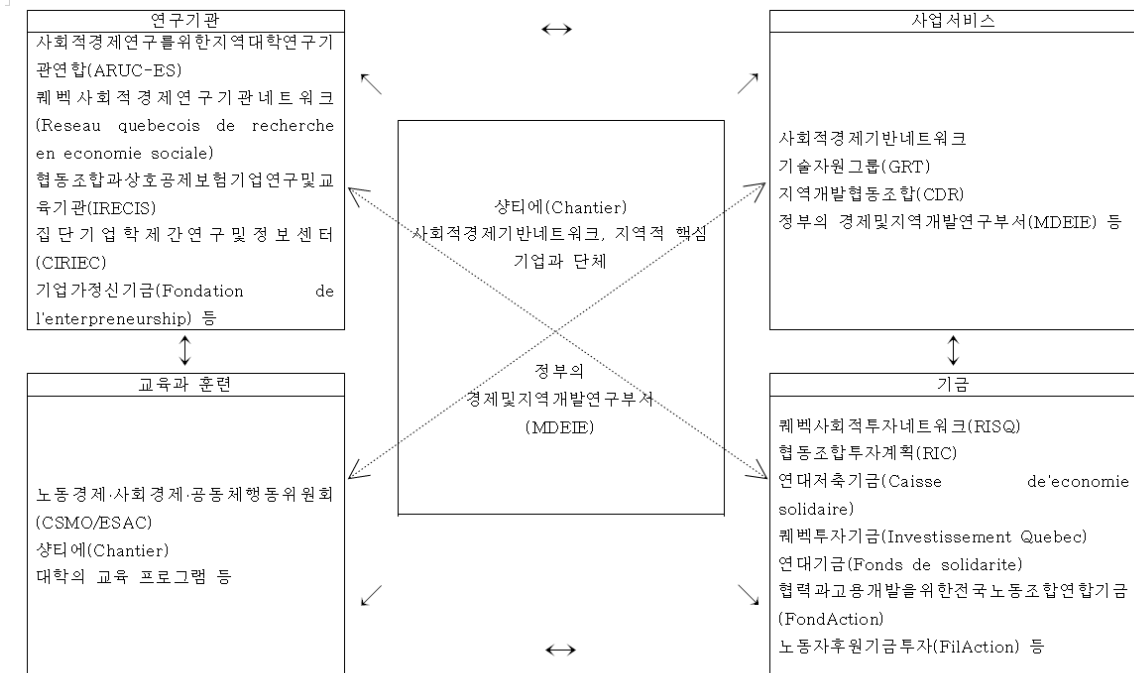
2012년 퀘벡을 방문 취재한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샹티에의 실험을 통해 이후 10여 년 동안 탁아 서비스 부문에서 2만50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1만 호가 새롭게 지어졌다. 쓰레기 재활용 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수십여 개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취업도 이뤄졌다. 각종 문화 사업을 위한 협동조합 등도 생겨나면서, 일자리 역시 크게 늘었다. 단순한 연대조직에서 출발한 샹티에는 한시적인 사회연대회의 기구였다가, 이제는 상설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같은 실험은 캐나다 연방정부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2004년 폴 마틴 당시 총리 역시 사회적 경제를 핵심 사회정책으로 선언했고 이 정책은 캐나다 전역에서 사회적 경제 열풍이 일어나도록 했다. 물론 이후 보수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퀘벡을 비롯한 캐나다 각 주에서 사회적 경제는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²⁾

2) “1억명 열광 '태양의 서커스'가 성공한 비결, 퀘벡의 조용한 혁명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2012.8.19, <오마이뉴스>

3.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전방위 네트워크

[그림1]은 퀘벡의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이다. 샹티에를 중심으로 퀘벡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퀘벡 사회적 경제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기금이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기금이 매우 다양해서 전체 규모나 범주를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다. 정부는 기금 투자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대부분의 경우 직접 출자하며 매년 운영비도 지원한다. 하지만 퀘벡의 사회적 경제 기금 중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는 주체는 금융협동조합인 데자르맹 은행과 퀘벡 노동조합총연맹이다.

[그림1] 퀘벡의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 출처 : Some Initiatives that Enabl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Quebec's Social Economy, Mendell, 2004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연대투자기금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퀘벡의 노동조합은 1980년대 초부터 노동자연대기금을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샹티에 위원장 낸시 님탄(Nancy Neamtan)은 2010년 ‘인간중심 경제에 관한 캐나다 전국회의’에서 “노동조합과의 통합이 사회연대경제 성공의 열쇠”라고 말한 바 있다.

퀘벡의 노동자연대투자기금 중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연대의 기금(Fonds de Solidarité)’으로 1983년에 퀘벡의 가장 큰 노동조합연맹인 FTQ(Fédération des travailleurs et travailleuses du Quebec)에 의해 만들어졌다. FTQ는 북미와 캐나다 전체를 아우르는 40개의 노동조합이 연합한 형태로 17개 지역위원회와 5000개의 지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은 약 50만 명이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여성이고, 30% 이상이 35세 이하로 여성 노동자와 젊은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1980년대 퀘벡 지역의 경제 위기와 심각한 실업 상태에 처하자 FTQ는 내부 토론을 거쳐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연대의 기금’을 만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방과 주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기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얻어냈다. 기금은 퀘벡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위해 쓰이도록 그 목적이 정해져 있으며, 기금의 최소 60%는 퀘벡에 소재한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최근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이 더해졌다.

2008년 기준 기금의 총 자산은 73억 달러(약 8조300억 원)이며, 그 동안 퀘벡 경제에 41억 달러(약 4조5100억 원)를 투자했고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현재는 부문별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투자하는 SOLIM과 지역별로 투자하는 SOLIDE로 분화되었다. 초기에는 중소기업에만 투자하다가 2005년부터는 최대 자산 1억 달러(약 11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도 투자하고 있다. 2006년에는 상티에의 금융 파트너가 되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자본 마련을 위해 설립된 상티에 투자기금 5280만 달러(약 580억8000만 원) 중 1200만 달러(약 132억 원)를 투자했다. FTQ는 이 기금 자체를 하나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기금운영은 철저히 소속 노동자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펀드액션(FondAction)’으로 1996년에 퀘벡에서 두 번째로 큰 노동조합연맹인 CSN(Confédération des syndicats nationaux)이 설립하였다. CSN은 1921년 만들어진 노동조합으로 현재 조합원은 약 30만 명이며 4000여개의 작업장이 소속되어 있다.

CSN는 자신들의 활동 자체가 퀘벡의 발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과 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펀드액션은 협동조합 설립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퀘벡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집단적으로 소유되고 참여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만 투자하고 있다. 소속 노동자들의 퇴직기금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역시 연방과 주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2008년 기준 기금의 총 자산은 6억 3560만 달러(약 6900억 원)이며, 그동안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왔다.

기금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필수적인 각종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들이 풍부하며, 이들은 특히 교육과 훈련에 힘을 쏟는다. 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들은 협동조합을 위한 각종 정보 수집,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단기 컨설팅뿐 아니라 장기계획 수립에 자료를 제공한다. 매년 평균 15개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협동조합들이 겪는 크고 작은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는 지역개발협동조합(CDR)이 대표적 단체이다.

이처럼 퀘벡에서 탄생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라면 주변 곳곳에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자금을 만날 수 있다.

4. 퀘벡의 다양한 협동조합들

1) 퀘벡 사회적 경제의 기둥, 데자르맹

여기서는 퀘벡의 다양한 협동조합 중 대표적인 것을 몇 개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퀘벡 사회적 경제의 시작과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금융협동조합 데자르맹(Desjardings)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데자르맹은 1900년 퀘벡시티 인근 레비 지역에서 알퐁소 데자르맹(Alphonse Desjardins)과 그의 부인 도리멘 데자르맹(Dorimene Desjardins)의 주도 아래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가톨릭 교구를 중심으로 하여 조합비 5달러(약 5500원)의 작은 신용협동조합인 인민금고(Caisses Populaire)로 시작했다. 1901년부터 본격적 영업을 시작하여 이후 데자르맹 운동(Mouvement Desjardins)으로 불리면서 퀘벡 인근 캐나다와 미국 지역으로 확산되

었다.

당시부터 현재까지 레비 지역을 비롯한 퀘벡의 대다수는 프랑스계로, 이들은 영국계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낮았다. 당시 기존 은행들은 시내에만 존재하여 시골인 레비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이 영국계의 소유였기 때문에 대출이 쉽지 않았다. 은행 외에 고리대금업도 존재했으나 이자율이 3000%에 달했다. 가난한 농부들이 농사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금융이 절실히 필요했다. 데자르맹 부부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당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도움을 받아 유럽의 협동조합을 연구한 끝에 지역에 맞는 새로운 협동조합의 형태를 고안했다. 기존 유럽 협동조합과의 차이점은 첫째, 유한책임이라는 점, 둘째, 출자금을 빼서 조합을 탈퇴할 수 있게 했다는 점, 셋째, 조합비를 할부로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가입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저축을 장려했다는 점³⁾, 넷째, 소규모의 가톨릭 교구별로 운영하여 신뢰와 안정성을 담보했다는 점이다.

초기 설립 과정에서 눈에 띄는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 당시 협동조합 가입 조건으로는 5달러의 조합비 납부 외에도 금주(禁酒)를 약속해야 했다. 조합원이 되면 금주의 징표로 검은 십자가를 집에 걸어놓아야 했는데 지금은 기념관으로 쓰이고 있는 알퐁스 데자르맹의 집에서도 이 검은 십자가를 볼 수 있다. 이렇듯 금주를 강제한 이유는 가난한 이들이 술로 인해 성실한 생활과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한편 알퐁스 데자르맹보다 훌륭한 역할을 한 것은 그의 부인인 도리멘 데자르맹이다. 알퐁스가 연방 의회의 서기관이 되어 퀘벡을 떠나 오타와에서 지내는 몇 년 동안 도리멘은 혼자 10명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인민금고의 일을 도맡아 했다고 한다. 놀라운 여성이다. 퀘벡주의 사회적 경제를 이끌고 있는 님탄이 여성인 것도 단지 우연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다.

인민금고가 확산되자 1910년 주정부는 협동조합은행에 관련된 법을 제정했다. 1920년에는 지역별로 인민금고 연합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곳에서 예금과 대출에 대

3) 당시 상황은 일반적인 노동자의 주급이 20~30센트로 조합비 5달러를 한 번에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1년간 일주일마다 한 번 10센트씩 할부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1년 간 납부하면 총 52주 동안 5달러 20센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중 5달러는 조합비로 내고 나머지 20센트는 조합원의 저축예금으로 남겨두었다.

한 관리감독 역할을 맡으면서 금융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948년 데자르댕 생명보험(DLA, Desjardins Life Assurance)을 설립하고 1952년에는 퇴직보험을, 1953년 가족보험, 대출보험, 그룹보험을 상품으로 내놓았다. 1965년에는 데자르댕 펀드(Fonds Desjardins), 데자르댕 모기지 펀드(Desjardins Mortgage Fund), 1988년 데자르댕 머니마켓 펀드(Desjardins Money Market Fund) 등을 시작하며 현대적 금융기관으로 변모했다.

1971년 데자르댕 연대저축기금(Caisse d'économie solidaire Desjardins)을 설립한다. 이것이 앞서 강조했던 퀘벡의 사회적 경제 기금의 시작이다. 1994년에는 데자르댕 국제개발(Développement international Desjardins)을 설립하여 국제협동에도 나섰다. 데자르댕의 첫 시작이 가난한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에게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었듯이 개발도상국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남미, 동아시아 등 세계 34개국을 지원하고 있다.

데자르댕은행은 퀘벡에서 가장 큰 금융그룹이자 캐나다에서 가장 큰 금융협동조합 그룹, 세계 6위의 금융협동조합 그룹으로 우뚝 섰다. 2012년에는 세계에서 안전한 금융기관 18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무너지는 와중에 선정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자산은 1900억 달러(약 209조 원)에 이르며, 수입은 132억 달러(약 14조5200억 원), 순이익은 15억 8200만 달러(약 1조7400억 원)에 이른다. 자기자본비율은 17.3%에 이른다. 보통 국제적으로 은행에 요구되는 자기자본비율이 8%인데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 지점 수는 433개에 달하며, 직원 수는 4만7000명이다. 중요한 것은 퀘벡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매해 800만 달러(약 88억 원) 이상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고 있다. 초기에 아무도 성공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태양의 서커스'에 자금을 지원해준 것도 데자르댕 은행이었다. 단순히 수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2011년 현재 조합원 수는 560만 명인데, 초기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조합비 5달러만 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같은 해 전체 조합원들에게 배당된 금액은 3억2000만 달러(약 3520억 원)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데자르댕 은행

및 데자르댕 금융기관⁴⁾을 이용하면 이용 정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들은 400여 개 인민금고 지점별로 인민금고조합원총회(Caisse general meeting)를 열어 인민금고이사회(Caisse boards of deirectors)와 관리위원회(Caisse boards of supervision) 선출하여 자신이 속한 인민금고의 운영을 맡긴다. 또한 조합원들에 의해 255명의 대의원들이 선출되어서 데자르댕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대의원 총회에 참여한다. 그리고 1100여 명의 인민금고 대표 조합원들로 구성된 전체 조합원 연차 총회도 진행된다.

데자르댕은 돈은 인간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조합원들의 도덕적 헌신과 자조정신이 중요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협동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다섯 개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조합원들이 꾸준히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출보다는 저축을 강조하고, 위험한 투기보다는 자본축적과 그것을 통한 지역 내 투자를 강조한다.

2) 농산물 판매에서 주유소까지, 라콥페데레

생산자협동조합인 라콥페데레(La Coop fédéré)는 1922년 퀘벡, 몬트리올, 생로잘리 지역의 세 개 협동조합이 통합 결성한 퀘벡농업협동조합연맹에서 시작되었다. 이듬해 라콥페데레로 개칭한 후 1930년대부터 시설과 공장의 현대화를 꾀하며 버터와 치즈, 비료, 종자, 농산물 판매에 나섰다. 1955년에는 도축 전문 기업을 설립했다. 1958년에는 주유소 산업에도 진출했다.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조합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시골 지역에는 주유소가 부족하여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주유소들이 수지타산을 계산하느라 시골 지역에서 주유소를 철수하면 라콥페데레가 그것을 인수하였다. 협동조합에게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캐나다 최대 농업시험장 보유 기업, 최대 비료 공급업체, 최대 돼지고기 및 닭고기 수출업체로 자리 잡았다. 2011년 기준으로 자산은 3억8000만 달러(약

4) 현재 인민금고인 은행 외에도 자산관리 및 건강보험 등 다양한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자회사들은 조합원이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다.

4180억 원)에 달하며, 수입은 45억5300만 달러(약 5조 원), 순이익은 9139만 달러(약 1005억 원)이다.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회사로 주유소 소닉(Sonic), 육류 수출업체 올리메르(Olymel), 주택건설자재구매 협동조합 유니매트(Unimat), 농산물 판매 아그로마트(Agromart) 등이 있다. 특히 정부의 농림수산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3) 즐거운 일터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세탐

성공한 노동자협동조합모델로 꼽히는 구급차노동자협동조합 CETAM(Coopérative des techniciens ambulanciers de la Montérégie)은 1988년 민간 구급업체가 파산하게 되자 당시의 노동조합이 노동자협동조합 형태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탄생했다. 40명의 노동자가 1000달러(약 110만 원)씩 출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데자르댕 금융그룹에서 대출을 받았다. 여기서도 데자르댕 은행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은 최장 5년 동안 총액이 1만5000달러(약 1650만 원)가 될 때까지 출자금을 분할 납부하는데, 5년이 지나면 출자금을 찾을 수 있으며, 다시 5년 동안 1만 5000달러의 출자금을 납부한다.

현재 퀘벡 지역 최대 구급업체이며 이 지역 구급차 서비스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연간 6000건의 응급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보유한 구급차 수만 46대이며, 7개의 지부를 두고 운영 중이다. 조합원 수는 340명인데, 평균 연봉은 4만6000달러(약 5060만 원)이고 평균 연간 근무시간은 1500시간이다. 평균 배당액은 8000달러(약 880만 원)로, 세탐의 구조사들은 연봉에 배당액을 추가하여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세탐은 구조사들에게 인기 직장이다. 배당액은 일한 시간에 따라 정해진다.

세탐은 이윤을 내는 동시에 협동조합의 정신을 지키려고 한다. 특히 노동자협동조합인 만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고의 장비를 제공하고, 즐거운 근무여건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이런 활동은 단지 세탐이라는 하나의 직장 내에서만 그치지 않고 전체 구조사의 역할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이어졌다. 1990년에는 세탐의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주정부를 설득하여 퀘벡주 전체 주요 장소에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제세동기(전기 충격을 통해 심장 박동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구)가 설치되도록 만들었다. 또한 기존에 125시간의 훈련만 받으면 구조사가 될 수 있었지만 3년

제 전문학교를 졸업해야만 구조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내용 강화에도 기여했다.

3)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 CDR

사회적 협동조합인 지역개발협동조합(CDR)은 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이다. 퀘벡주에 지역별로 11개의 CDR이 존재한다. 우리는 몬트리올-라발 지역의 CDR을 방문했었다. CDR의 기본 목표는 협동조합 육성과 지역 개발이다. 지역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주정부와 협동조합협의회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데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퀘벡 주정부의 경제개발혁신수출부(MDEIE)에 있는 협동조합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몬트리올과 라발 지역의 CDR은 퀘벡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CDR로 1986년 주정부의 장관 다니엘 존슨(Daniel Johnson)의 제기로 설립되었다. 이전까지 이 지역의 CDR은 생산자협동조합으로 운영되었으나 2012년 6월부터 조합원이 아닌 후원자, 지지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을 넓힌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바뀌었다. 현재 130개의 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직원은 8명이다. 한 해 예산은 90만 달러(약 9억9000만 원) 정도인데 이 중 주정부의 지원금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나머지 금액 역시 각종 사회연대기금들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퀘벡 특유의 사회적 경제 기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CDR 역시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캠페인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한다. 에컨대 협동조합 정관 작성, 재정 및 회계, 총회 진행 등 구체적인 일들을 돕는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의 젊은이들이 협동조합으로 지역에서 창업을 하도록 돕는 사업과 이민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4) 경제의 모든 곳에 자리 잡은 협동조합

이상의 퀘벡의 협동조합을 정리해보자면, 크게 금융 부문과 비금융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금융 부문이 매우 발전해 있는 것은 중요한 특징이자 매우 큰 장점이다.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가 자본의 조달인데 금융 협동조합들의 재정 지원 덕분에 많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가 건설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데자르댕 외에도 대부분의 금융 협동조합에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비금융 부문에서는 생산자협동조합의 대표로 농업 분야를 살펴볼 수 있는데 라꿍페 데레 외에도 아그로포르(Agropur)라는 농산물생산협동조합이 존재한다. 퀘벡 최대의 농식품기업인 라꿍페 데레와 함께 아그로포르 역시 퀘벡 가공식품소비의 50%를 담당하고 있다. 농업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이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개수로만 따지면 비금융 부문 중에서 가장 많으며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주로 식료품 부문에서 소비조합이 발달한 것과 달리 퀘벡에서는 비식료품 부문에서도 소비조합이 발달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대 등산야외활동용품 소비협동조합인 MEC(Mountain Equipment Cooperative)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의 한 형태로 대학생협(School Coop)도 활성화 되어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200개 정도가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세탐 외에 택시노동자협동조합인 쿵택시(Coop Taxi)가 유명하며, 자연조건에 의해 발달해 있는 임업, 산업특성상 일반기업보다 협동조합이 적절한 문화예술분야 등에서 주로 존재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최근 성장률 35%를 기록하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갈수록 사회 구성과 현실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탓에, 협동조합이 단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역할에 많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조합원 외에 협동조합의 직원, 지역 주민, 후원자, 지지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이 진화하고 있다. 상조장례나 노인과 장애인 재택돌봄,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발달하고 있다. 